

퇴직후 ‘숫대 공예’로 제2의 인생 열다

강홍구 전 노화농협조합장 새로운 도전...보길면 작은 갤러리서 무료 관람



‘숫대공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강홍구 전 노화농협조합장.

강홍구 전 노화 농협 조합장은 퇴
직 후 남다른 취미 생활을 찾기 위
해 오랜 고민 끝에 숫대 공예를 선택했다. 그는 은사인 강성배 씨를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연마한 끝에 오늘날의 위치에 이르렀다. 한국 숫대 공예 협회에 가입한 후 10여 년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강 작가는 개인전을 열 계획이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회복한 강홍구 작가는 다시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숫대 개인전을 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현재 남해화학의 이사와 감사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보길면 부황리에 위치한 자택에 갤러리를 마련하고, 누구나 무료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강홍구 작가의 숫대 공예는 전통

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로, 그의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정서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숫대 공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강 작가의 작은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홍구 전 조합장의 새로운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숫대 공예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원도=이두식 기자



(좌)덕인약품 윤승곤 대표, 올해도 나주시에 고향사랑 실천 나주시는 (우)덕인약품 윤승곤 대표가 올해까지 3년 연속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승곤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 당시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을 나주시에 쾌척한데 이어 2024년에는 200만원, 올해도 500만원을 기탁함으로써 3년 연속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나주시 제공



광양읍, 산불 예방 캠페인 광양시는 광양읍 남·여 의용소방대원과 읍사무소 직원 30명이 광양읍 5일 시장을 찾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예초·그라인더·용접·기계톱 작업 시 불씨 주의 ▲입산 시 화기 소재 금지 등의 산불 예방 수칙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양=조순의 기자



국립순천대, 순천SCS어린이마을 '기억과 공감' 멘토 위촉식 개최 국립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순천SCS어린이마을에서 직원과 재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프로그램 '기억과 공감'의 멘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대 사회봉사단은 2021년 순천SCS어린이마을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 보호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순천소방서, 순천만요양병원 현장 안전컨설팅 순천소방서는 저전119안전센터에서 별관면에서 위치한 순천만요양병원을 방문해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고향사랑기부 24억 모은 동구...답례품에 전통시장 매출 '쑥쑥'

전국 기초지자체 1위...답례품으로 지역업체 6억6천 매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급증하면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업체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전년(9억 2141만원) 대비 약 2.6배 증가한 23억 974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증가로 지역업체의 답례품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후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30% 상당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답례품 구입 비용으로 총 6억61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품목은 7037명의 선택을 받은 남광주시장 소재 '자연축산'의 한돈 삼겹살·목살이다.

자연축산은 삼겹살·목살 구이세트 6464건을 답례품으로 판매해 매출 1억 9400만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찜개용 앞다리살도 438건 판매해 1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작년 한해 답례품으로만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어 농협회사법인 (주)우리는 로스구이(등심·안심·채끝) 3114건을 판매하면서 9300만원, 지역 유명

식점 마한지의 양념 돼지갈비도 2120건으로 6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광주축협은 한우 등심과 식품업체 진선의 포기김치 등도 각각 4000만원과 3500만원의 답례품 매출을 올렸다.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자 남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도 답례품 제공 업체 등록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참기름과 해프랑 협동조합의 소내장 추어탕, 최재호 김치, 그린스토어 홍어 무침, 유명떡집 수제han과, 영광굴비의 구운 갑오징어·보리굴비 등 업체 6곳이 신규 답례품 업체로 추가되기도 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소방본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루미너스팀 최우수상...광주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제14회 광주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1개 팀과 대학·일반부 6개 팀 등 총 7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심정지 발생 상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행동을 주제로 8분 이내의 발표 경연을 벌였다.

무대 표현, 심폐소생술 평가표, 장비를 이용한 기록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청소년부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루미너스 팀(서부소방서 대표)'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루미너스 팀은 오는 5월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생 맞춤 '토론·논술 NDD교육' 도입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론 및 논술 교육 프로그램인 '광주 토론·논술 학교 제1기 NDD 교육과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엔디디 교육과정'은 New Debate Discussion Curriculum의 약자로, 학생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대학입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심화과정인 셈이다.

시교육청은 토론과 말하기 영역, 그리고 대입 논술 영역에 대한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엔디디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제1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교육과정이 확산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엔디디 교육과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5명을 선정해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주말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과정은 총 3개 학급으로 나눠 인문 논술과 묵을 총 34시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학생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대입 논술·면접전형 이해 ▲논술문 작성 ▲논술 기술 문제 분석 및 실제 ▲대입 면접 및 발표 ▲말하기 방법 이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토론 기술 ▲심층 독서토론 활동 등을 진행한다.

/조선주 기자

신호엔지니어링, 함평에 1천만원 쾌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선정돼 지역 환원



(주)신호엔지니어링이 함평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함평군은 13일 "신호엔지니어링이 지난 10일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 지원을 위해 인재양성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이웅섭 (주)신호엔지니어링 사장을 비롯

해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뜻을 모았다.

(주)신호엔지니어링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함평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인재양성 기금에 기탁했다.

/함평=지대만 기자

광양 스마트원예과-목포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지역 간 협력 증진·상생 발전 도모



광양시는 스마트원예과 직원들과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실천으로 지역 간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을 도모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를 실천하면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와 목포시 공무원들은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상호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상대 지역의 발전을 응원했다.

우미자 광양시 스마트원예과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두 도시 간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목포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순천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청렴 교육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연수·간담회 실시



순천교육지원청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순천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77명과 영양교사 대표 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청렴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 및 간담회는 '함께하는 청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에서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

(NeaT)의 이용 방법 및 자격 제한 기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식재료가 학교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전남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청렴 인지도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계약 체결 및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고충, 건의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구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순천=조순의 기자